

# 화순군, 백아산 하늘다리 통신 기지국 설치 협의

### 이동통신 3사와 등산로 통화품질 향상 논의 오는 23일 현장 확인...“안전사고 예방 위해”

화순군이 지난 7일 이동통신 3사(SKTEL·LGU+·KT)와 백아산 하늘다리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군은 최근 백아산을 찾은 등산객이 길을 잃고 통신두절로 조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모

질 좋은 통신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등산로 산 정상 부근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설치를 위한 시기, 재정 부담, 행정 지원 사항 등 제반 사항을 논

의했다. 오는 23일에는 이동통신 3사와 군청 살림부서가 함께 백아산 하늘다리 현장 확인 후 기지국 설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백아산과 정상부에 위치한 하늘다리 주변은 고산철쭉 군락지 등이 펼쳐져 자연 경관이 수려하다”며 “인근 무등산, 화순온천, 관광목장, 자연휴양림, 화순적벽 등 각종 휴양 시설이 산재해 연간 수만 명의 등



산객이 찾고 있는 산이니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화품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화순군보건소 일시폐쇄...긴급방역 ‘완료’

### 보건소 직원 가족 확진에 따른 조치...전직원 검사 후 격리

화순군이 8일 하루 화순군 보건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군은 7일 저녁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화순군 보건소 직원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확진자(번호 미부여)는 광주 117번 확진자와 광주고시학원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즉각 보건소 직원을 자가 격리하고 8일 하루 선제적으로 보건소와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일시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시행했다. 또한, 8일 오전 보건소 전체 직원에 대한 검체 채취를 완료하고 전원 자택격리 조치했다.

보건소 일시폐쇄에 따라 코로나19 방역과 상담, 검체 채취 등 감염병 대응은 지난 2일 하니움문화센터 2주차장에 설치한 승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에서 수행하게 된다. 구종근 화순군수는 “보건소 일시폐쇄로 주민께 불편함을 끼쳐 송구스럽지만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청정 화순’을 지키는 수문장이라는 마음으로 밀폐, 밀집, 밀접 고위험 시설 출입을 삼가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순국선열·호국영령의 혼’ 숲에 깃들다

### 곡성군, 보훈회관 숲은 자투리 땅 활용 녹색쌈지숲 조성

곡성군은 보훈회관 건물 부지 내 숲은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혼이 깃든 ‘녹색쌈지숲’ 조성을 완료하였다. 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곡성 보훈회관 건립에 이어 보훈회관 이용자들을 위한 쉼터의 필요성을 느껴 군 산림과와 주민복지과가 함께 녹색쌈지숲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훈회관 녹색쌈지숲 주요 식

재 수종은 100일 동안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무궁화와 소나무 외 7종 교목 60주, 수수꽃다리 외 4종 관목 3,383주, 기타 초화류 7,170본 등이다. 또한, 기존 수목 재배치와 함께 봄에는 산수유, 뽕나무, 조팝나무, 여름·가을에는 배롱나무, 무궁화, 산수국, 겨울에는 소나무 등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보훈회관 이용자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녹색 쉼터로서 큰 역

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와 여름철 폭염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숲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전파로 인한 야외 활동의 제한 조치의 해소책으로 녹색쉼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곡성군은 2020년도 도시숲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곡성의 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별도 수립중이며 아울러, 2021년 도시숲 조성 공모사업에 미세먼지차단숲 외 5개 사업이 선정되어 45억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숲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곡성=김평휘 기자

## 장성군, 집중호우 대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일제 점검

### 마을하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등 49개소 ‘점검’

장성군이 장마 등 하절기 집중호우에도 우수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시설 점검을 펼친다. 군은 전문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26

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에 대해 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장성·삼계 하수시설과 동화전자·나노 폐수시설, 배수펌프장,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49

개소다. 군은 점검을 통해 하수처리장 구조물 및 주변의 위험 요소를 확인한다. 또 방류구 주변의 청소와 배수 상태를 점검해 원활한 배출을 유도한다. 배수가 취약한 하·폐수의 관로 구간은 필요한 경우 준설 작업을 진행한다.

## 담양군, 아열대채소 ‘공심채’ 연구 한창

담양군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철분과 무기질이 풍부한 아열대채소 ‘공심채’의 재배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모닝글로리’라고도 불리는 공심채는 동남아시아에서 흔하게 먹는 국민 채소인 동시에, 음식으로만 쓰이지 않고 자연에 무해한 친환경 빨대로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에 걸쳐 넓게 재배되는 공심채는 고온의 기후와 습한 곳에서 잘 자라 장마철이나 여름철 흑사기에도 생육이 왕성하며, 비타민 A와 철분이



매우 많은 건강 채소로, 맛과 향이 강하지 않아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 현재 군에서는 공심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현지지도도 진행하고, 전문요리점 벤치마킹, 딸기 휴경기 재배 적응성 시험을 추진 중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 사학연금, 나주 지역 초등학교에 우산 배부

24곳에 투명우산 전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7일 나주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남 나주지역 전체 초등학교 24곳에 안전우산 260여개를 배부한다. 안전우산은 발광인쇄가 포함된 투명우산이다. 우천 시 학생들의 시야 확보를 돕고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소규모 학교에는 전교생에게 배부하고, 100명 이상 학교에는 1-2학년에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사학연금은 지난 5월 나주교육지원청과 지역 교육발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학교 벽화 그리기 사업에 이어 장마철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우산을 배부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등하굣길 아이들 안전을 염려하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안전우산을 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교육환경 발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화순군, 코로나19 차단

### 공중화장실 집중 관리

화순군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광주·전남의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172개 곳에 대한 강도 높은 위생·정결·방역 관리에 나섰다. 특히, 휴가철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원과 관광지의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신체 접촉이 빈번한 물 내림 버튼, 출입문 손잡이, 변기 커버 등은 매일 두 차례씩 소독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감염 확산에 군은 지난 6일 방역 단계를 ‘생활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군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1m 이상 간격 유지하기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30초 이상 손 씻기 △의심 증상 있는 경우 이용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 평 일 남

# 범 상 다

# 한 속 른

# 여 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